

사이엔도(가마쿠라 시대 국보)

이 팔각형 모양의 건물은 제 45 대 천황 쇼무 천황(701~756 년)의 비인 고묘 황후(701~760 년)의 모친 다치바나노 미치요가 발원하고 나라 도다이지 절(東大寺)의 대불 건립에 크게 공헌한 승려 교기(668~749 년)가 건립했다고 전해집니다. 원래의 건물은 718 년에 지어졌지만, 현재의 건물은 1250 년에 재건한 것입니다. 사당 내부에는 의약과 치유의 부처인 약사여래좌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. 이 좌상은 나라 시대(710~794 년)의 작품으로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건칠불상입니다.

사이엔도에서는 매년 2 월 초에 슈니에(修二會)라는 법요가 거행됩니다. 1261 년부터 계속된 이 의식에서는 세상의 평화, 오곡의 풍양, 사원의 번성 등을 기원합니다. 이어서 요괴를 쫓는 구나 의식인 쓰이나시키(追儺式)가 열리는데, 3 마리의 악귀 앞에 미늘창을 든 무신 비사문천이 나타나 악귀를 퇴치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.